한국사회 병폐의 총체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로

참사 2주기, 그 후 한국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4인의 피해자 아버지 통해 상식이 전복된 사회 조명 '업사이드 다운' 14일 개봉

한창 있기 있는 TV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위는 말한다. "국가, 국가가 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국가야. … 군인인 나한테 생명보다 우선하라고 국가가 준 임무는 없으니까."

생명이 뒷전이 된 '4.16 세월호 참사'로 금쪽같은 내 새끼를 잃은 네 아이의 아버지가 지난 시간을 떠올린다. 고 박성빈의 아버지 박영우, 고 한고운의 아버지 한복남, 고 김다영의 아버지 김현동, 그리고 고 제세호의 아버지 제삼열이다. 출생의 순간부터 지난 18년 간의 추억을 떠올릴 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돈다.

하지만 문제의 수학여행 그날과 지옥을 맛본 지난 2년에 이르면 네 아버지의 눈시울은 붉어지고 만다.

해양공학 교수부터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 박사까지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는 세월호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되짚는다.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하지만 그들의 진단과 아버지들의 증언이 끝날 때면 세월호 참사에 무뎌진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사회 병폐의 총체였던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가 무엇으로 돌아가는지 그 추악한 모습을 거울처럼 비췄다. 그렇다면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야 하는데,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국민 누구나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망각과 침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14일 개봉하는 '업사이드 다운'(감독 김동빈)은 16인의 전문가와 4인의 피해자 아버지를 통해 상식이 전복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의 행태, 안전대책, 정부의 대응 등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다각도로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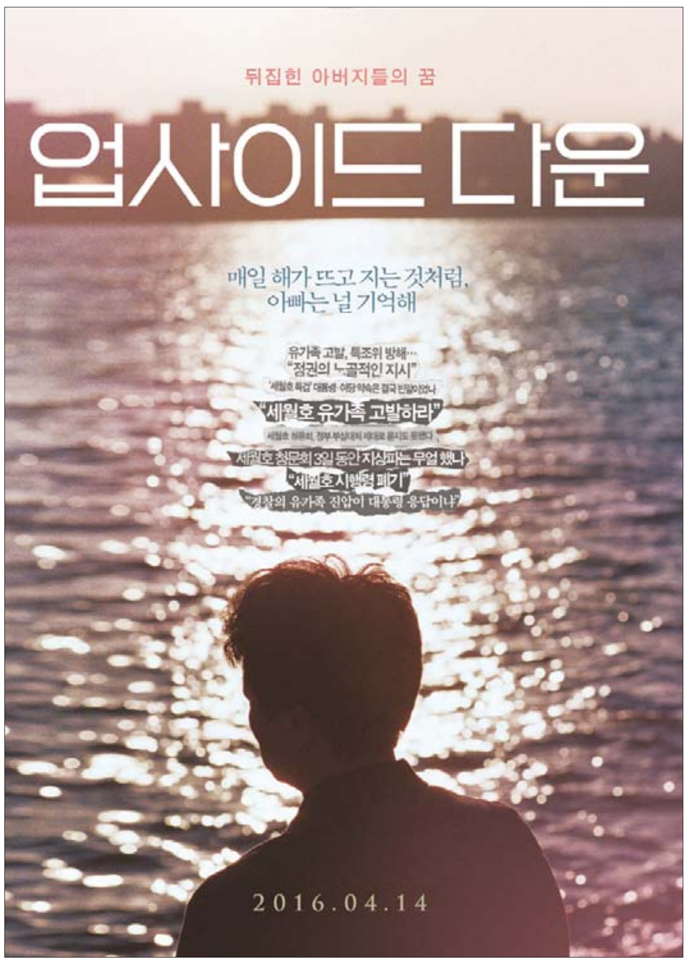
메가폰을 잡은 김동빈 감독은 미국에서 세월호 참사를 접하고 혈혈단신으로 한국으로 왔다. "한국사회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느꼈던 것"이 고국행의 이유였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기 우리 사회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을 품어주고 위로해야 할 나라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시민영상 제작단 '프로젝트 투게더'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최종 25명의 스태프로 제작팀을 꾸려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000명의 시민에게서 제작비를 후원받았다.

"가장 먼저 연락해온 사람은 보스턴에서 의대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었다. 이후 한국의 대학생, 회사원, 중학생, 자영업자 등 2~3일 만에 약 80여명이 연락해왔다."

김 감독과 프로젝트투게더는 유가족과 함께 국회와 거리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어떤 날은 서울 대전 여수 그리고 부산을 거치는 강행군을 하루 만에 소화했다. 유가족 중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를 인터뷰한 이유는 슬픔을 참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더욱 눈길이 가서다.

"아버지들은 말 한 마디 떼기 참 어려워한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아빠가 말하는 딸과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세월호 4인의 피해자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은 '업사이드 다운'

피해자 유가족을 따라다니면서 큰 슬픔을 목도했다. "처음에 그들은 피로 이상의 어떤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꾸역꾸역 참아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슬펐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저녁일 때면 가끔 국회 뒤를 산책하며 조용히 울었다." 그는 "피해자를 거리나 사회 밖으로 내보는 게 아니라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군산시립도서관, 23일까지 봄주제 독서문화행사 '풍성'

군산시립도서관은 제52회 도서관주간・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도서관의 봄, 책을 봄, 미래를 봄'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도서관주간행사는 15일 시니어 보드게임 체험을 시작으로, 향긋한 봄나물피자 만들기 체험, 퓨전인형극 안녕 꼭두, 1대1 도서교환 책나눔도서교환장터, 과월호잡지 배부, 두발자전거배우기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

또 도서관주간 기간 동안 장기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연체도서를 반납하면 대출정지를 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995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하고자 시립도서관 자료실 성인이용자를 대상으로 캘리그라피로 제작된 책갈피를 오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배부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에서 선착순으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도서진흥계(063-454-563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춘향제 빛낼 최고의 춤꾼 모집

남원시, 이달 29일부터

제86회 춘향제 대표행사중 하나인 춤경연"이판.사판.춤판"과 사랑을 위한 "춘향길놀이"가 전국 최고의 춤꾼들을 3월29일부터 4월22일까지 24일간 모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에 나섰다.

사랑을 위한 춤경연"이판, 사판, 춤판"춤경연은 5월14일부터 5월15일 19~21시까지 총 이틀동안 진행되며, 총24팀 약700여명을 모집한다.

전국각지에서 내로라하는 춤꾼들이 모여 멋진 춤경연을 펼치게 될 이번 무대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제85회 춘향제보다 더욱 화려하고 수준있는 무대로 꾸며질 계획이다.

춤경연을 통해 젊은세대의 감각 및 놀이코드를 느낄 수 있으며 모두가 신나게 놀고 즐기면서 젊은축제로 탈바꿈되어 기존 전통을 유지하던 춘향제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사랑을 위한 "춘향 길놀이"는 5월14일(토) 14 ~16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며, 총22팀 약600여명을 모집한다.

행렬구간1.7Km,- 용성초 ~ 제일은행4거리 ~ 국민은행4거리 ~ 광한루원서문 ~ 광한루원앞 춤판광장 ~ 십수정(해산)을 행렬할 동안 제일은행, 국민은행에서 두 번의 퍼포먼스와 춤판광장에서 메인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행렬구간이 정체되지 않도록 행렬팀별로 3~5분 간격을 두고 행렬이 시작되며, 각팀은 약 3분동안 퍼포먼스를 펼친다.

22팀의 각기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체계화된 공연프로그램이 되도록 길놀이를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큰 호평을 받은 "이판,사판,춤판" 춤경연과, 퍼포먼스의 길놀이 무대가 만나 제86회 춘향제는 화려한 무대의 연출과 관람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남원 =유영철 기자

문체부, 지역서점 40곳 선정 400회 문화활동 지원

작가강연・독서동아리 운영・북콘서트 등 도서관 연계 활동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올해 지역서점 문화행사 사업에 참여할 40개 지역서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서점들은 앞으로 총 400여 회의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진흥원과 함께 도서할인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융성카드 발급과 지역서점 온라인 운영연결망(네트워크) 지원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다른 사업들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점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독서 인구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문화융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서점들은 작가 강연과 독서동아리 운영, 북콘서트, 독서캠페인, 낭독회, 시낭송, 음악회, 공공도서관 연계 문화활동 등을 개최한다. 또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신규 선정 서점에는 각 5백만 원(문화활동 및 문화시설비)을, 기존 선정 서점 중 재선정된 우수서점에는 각 3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점들 중에는 전통적인 책 전문 지역서점뿐 아니라 도서 판매 외에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복합서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숲 속 작은 책방'과 '봄날의 책방', '미스터버티고'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경험을 전국 서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괴산의 '숲 속 작은 책방'은 작년에 〈작은 책방, 책 좀 팝니다〉를 출간한 백창화 저자가 운영하는 가정식 서점으로서, 책을 찾는 여행객을 위한 민박시설(홈스테이)을 운영하고 있다. 통영의 지역 출판사 '남해의 봄날'이 운영하는 '봄날의 책방'은 작은 출판사가 운영하는 작은 책방으로서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소개하며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미스터버티고'는 경기 일산에 위치한 문학전문서점으로서 전 세계 문학작품이 작가의 출신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 맥주도 제공한다.

/정해은기자

전주박물관 '판타스틱 아쿠아' 4월 16일 오후 6시 야간 공연

국립전주박물관은 16일 오후 6시 전주박물관 강당에서 '판타스틱 아쿠아'를 공연한다.

이 무대는 미지의 세계 바닷속 보물을 둘러싸고 벌이지는 한바탕 소동을 무용극인 댄스컬(댄스와 뮤지컬의 합성어)로 전개한다.

댄스컬은 노래나 대사보다 몸짓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관람객은 공연에서 상상의 묘미를 더욱더 느낄 수 있다.

공연예약은 오는 8~15일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면 되고, 관람비는 없다. 문의는 220-1013로 하면 된다.

/정해은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4월 5일〉

▷쥐띠
48년생: 문서운이 좋으니 계약을 하기에도 좋은 운이다.
60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미치니 주의하라.
72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이 잘 되는 운.
84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지적받을 만한 일은 만들지 마라.

▷소띠
49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6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주의하라.
73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운이다.
85년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열어라.

▷호랑이띠
5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62년생: 원행은 삼가고 어려운 일에 닥치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86년생: 동기간과 일찍 움직이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끼띠
51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63년생: 아직은 좋은 운이 아니다.
75년생: 혼자서 힘들다면 타인과 함께 행동하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87년생: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마라.

▷용띠
52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가 따르니 조심하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이 따른다.
76년생: 경쟁자가 나타나나 마음 쓰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88년생: 윗사람으로 인해 일의 능률이 올라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혼로 고민하지 말고 조언을 구해봐라.

▷뱀띠
53년생: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거슬리는 상황에 처하나 가벼운 농담으로 상황을 잘 모면하라.
65년생: 식록이 있는 운.
77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화합에 신경 써야 하는 운이다.
89년생: 윗사람을 보조해야 하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난다.
66년생: 일적인 능률은 오르나 상황이 아직 좋지 못하니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78년생: 문서적으로 좋은 상황이 발생하니 기회를 잘 잡아라.
90년생: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려 하지 마라.

▷양띠
55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겠다.
67년생: 자신도 모르게 고집을 피우게 되는 운이다.
79년생: 정신도 육체도 바쁜 운이다.
91년생: 밖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원숭이띠
56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한 일이 생기나 해결되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6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윗사람에게 상담을 하라.
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은 좋으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운.

▷닭띠
57년생: 동기간과 모임을 가지면 기쁜 일이 생기는 운이다.
69년생: 외부와 내부가 편안하게 이어질 것이다.
81년생: 처음의 고생은 나중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다.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93년생: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먼저 솔선수범하여 베풀면 후에 이득이 따를 것이다.
58년생: 윗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을 잃지 마라.
70년생: 외부적인 일에 대한 성과가 좋으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8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돼지띠
47년생: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59년생: 다른 사람과의 신경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로함을 쉽게 느끼는 운이다. 휴식이 필요하다.
71년생: 가정적으로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운.
83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